

## 과로 · 스트레스로 악화된 질병 '업무상 재해'

업무로 인한 코로나 스트레스가 직장인의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대법원 2부는 최근 모 지방방송사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다 간염으로 사망한 최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과로로 인한 사망 등은 회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됐으나 계속된 근무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감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며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2001. 8. 5.)



## 코비아스, 간질환 조기 진단시약 개발

국내 한 바이오벤처업체가 간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표지물질에 의한 간질환 진단시약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내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는 의료 진단약 전문 제조 벤처회사인 (주)코비아스는 생명연 세포생물학 연구실과 공동으로 간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표지물질에 의한 간질환 진단시약인 'Liver Trak'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 현재 임상실험과정을 거쳐 상품화 준비중에 있다.

코비아스가 개발한 이 진단 시약은 과기부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돼 3년간의 연구기간과 약 7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됐으며, 인체 혈액중 당 단백질의 일종(asialo- $\alpha$ 1-acid glycoprotein, ASAGP)을 표지물질로 해 간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2001. 7. 11.).



## '아데포비르' 저항성 B형 간염에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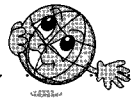
간염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아데포비르(adefovair)가 난치성이거나 라미부딘(lamivudine) 저항성인 B형 간염바이러스(HBV)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최근 'Journal of Clinical Virology' 지에 실렸다.

영국 버밍엄 의대의 데이비드 무티머는 아데포비르에 대한 리뷰에서 "바이러스 폴리머레이즈(polymerase) 억제제는 혈청역가를 감소시켜 간에서 염증과정을 통제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만성 HBV 감염치료제로 허가된 최초의 뉴클레오사이드는 역전사효소 억제제인 라미부딘이다.

그러나 라미부딘은 혈청 바이러스 역가를 신속하게 감소시키는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6개월 이후 약물저항성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1. 7. 6.).

## 인터페론, C형 간염환자 간암 예방효과 확인



인터페론은 C형 간염환자의 생존률에는 영향이 없으나, 간암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최근 'Gut'誌에 보고됐다. 이태리 볼로냐 대학과 파레르모 대학의 연구진은 144명의 간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페론이나 위약을 무작위로 투여해 비교임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터페론 투여군은 7명이 사망했고, 미투여군에서는 9명이 사망해 생존률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병증은 인터페론 투여군과 미투여군에서 각각 20명과 33명에서 발생했는데, 간세포종양의 경우 미투여군에서 19명이 발병한 것에 비해 인터페론 투여시에는 6명만이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합병증은 알부민, 빌리루빈, 프로트롬빈 등의 농도가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암은 식도 정맥류와  $\alpha$ -페토프로틴(fetoprotein)의 농도가 높거나 인터페론 투여가 되지 않은 경우 더 많이 나타났다

인터페론 알파를 투여한 경우, 12개월간 용량을 증량 조정하며 55개월동안 추적조사했고,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58개월동안 추적했다. 인터페론은 C형 간염 관련 간경화증 환자에서 간암 위험률을 1/3로 감소시켰으나, 약 6년간의 추적조사기간 동안 무발증(event-free) 생존률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2001. 6. 5.)

## 비알콜성 지방간 비만환자 '적절량 음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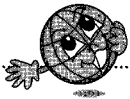


적당량의 알콜 섭취는 비만 환자의 진행성 비알콜성 지방간(NASH)과 관련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고 'Gastroenterology'지에 보고됐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중증 비만환자에게 흔한 질환으로서, 간경화나 간부전으로 악화된다 호주 멜버른 대학과 모나쉬 대학의 연구진은 최근 복강경 비만수술 환자 105명 생체 검체를 채취, 특정 조직과 임상적 생화학 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105명의 환자 중에서 25퍼센트는 비알콜성 지방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1퍼센트는 진행성 섬유증이었다. 이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했으며,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레이즈(alanineaminotransferase)가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진은 “인슐린 저항성, 혈압,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페레이즈 등의 3가지 검사 중 2개 또는 3개를 결합해 비알콜성 지방간을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알콜성 지방간이나 간 섬유증에 걸린 비만환자가 적당량의 알콜을 섭취할 경우 지방간 제어 및 당뇨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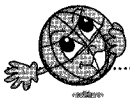
### 클라리쓰로마이신 ‘간독성 부작용’ 사실상 극미

최근 일본 후생성이 위제양 원인균 치료에 쓰이는 클라리쓰로마이신을 간기능 장애와 연관시킨 것과 관련 국내서는 클라리쓰로마이신이 정상적인 간기능 환자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며 위장관 환자에 단기 투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보고된 클라리쓰로마이신 부작용 사례도 “약에 의한 직접적인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원인질환이나 고연령 등에 의한 경우가 더 원인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암연구회 문영명 교수는 “클라리쓰로마이신은 현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간장질환 환자에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10일정도 단기 간 복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례가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알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병원 정훈용 교수는 “위장질환 환자중 간경화가 심하면 쓰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지만 정상 간기능을 지니고 있는 환자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2001. 7. 01).



### 조선대병원,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입원

지난달 19일 전국에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간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자환자가 데친고막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비브리오 증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전남 함평군에 거주하는 김모(56세, 남)씨가 최근 비브리오 폐혈증 증세를 보여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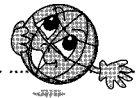
병원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8월 간경화로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간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 병원 관계자는 “김씨는 입원하기 3일전 데친고막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음주를 했다”며 “현재 왼쪽 다리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

는 등 피사가 진행되고 있어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유환 교수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볼니피쿠스라는 균이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특히 알토올 중독이나 간경화 환자에게 감염되면 2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이 균은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과 비슷해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25도 정도에서 최고로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나면 구토, 설사, 몸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곧 회복된다"며 "그러나 간질환 환자, 알콜중독,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위절제술을 받을 사람 등의 경우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2001. 6. 6)

## 동화, 국내 첫 간암치료제 '밀리칸주' 시판 허가



동화약품(주)은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간암치료제 '밀리칸 주사'의 후기 2상 임상 시험을 성공리에 종결하고 지난 5일 KFDA의 최종 승인에 따라 곧 시판에 들어간다

간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으로는 세계 최초가 되는 '밀리칸 주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 연구책임자 박경배 박사)와 공동연구로 개발되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임상시험책임자 이종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고려대 의대 부속병원, 아주대 병원 등에서 후기 2상 임상을 완료했다.

임상결과 초기간암환자 63명에게 투약, 유효율 77.7퍼센트(반응율 87.3퍼센트)을 보였으며 이는 1상 및 전기 2상 임상시험의 결과와 비슷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밀리칸주사의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그 개발 예가 드문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국내 기술로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권장되고 있는 산학연의 공동연구에 의한 결실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소와 그 동안 신약 개발 및 제제화연구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던 동화약품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각각의 분야만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 산학연의 공동연구 특히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의 차별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성공적 사례로 기록될만 하다(2001. 7. 7)

〈인터넷 의학정보 사이트인 데일리메디(<http://www.dailymedi.com>)에서 발췌〉